

【韓国昔話】孝女沈清

효녀 심청

場面1 亡くなった妻の代わりにもらい乳をしながら沈清を育てるお父さん

장면 1 세상을 떠난 부인을 대신하여 젖 동냥을 하며 심청을 돌보는 아버지

어느 마을에 심청이라는 효성 깊은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심청에게는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부인을 대신하여 젖 동냥을 하며 정성껏 어린 심청을 키웠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심청은 착하게 자라나 마을 일을 도우며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場面2 川に落ちてもがくお父さんを助ける和尚

장면 2 냇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스님

하루는 심청이 마을 잔치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늦는 심청이 걱정되어 아버지는 마중을 나갔다가 그만 개울에 빠졌습니다.

“사람 살려요” 그때 다행히 지나가던 한 스님이 구해주었습니다.

“쫓쫓.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아니.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

제가 꼭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겠습니다.”

場面3 守れない約束をし、後悔するお父さんとそれを慰める沈清

장면 3 못 지킬 약속을 하고 후회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위로하는 심청

“부처님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걱정스레 스님이 말하자 아버지는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공양미 삼백석이 문제이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돌아간 뒤 생각해보니 당장의 생계도 어려운 마당에 그렇게 많은 쌀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심청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하시지 말라며

아버지를 위로하였지만 심청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場面4 荒々しい波に揺れる船の上から身を投げる沈清

장면 4 거센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을 던지는 심청

그때 마을에서 상인들이 물살이 심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인당수 바다에 성난 용왕님을

달래고자 제물로 바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쌀 삼백석을 주시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안된다. 심청아. 네가 없으면 내가 눈을 뜬 들 무슨 소용이냐”고 대성통곡하였지만 이미 심청은 배에 오른 뒤였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場面 5 海の上に大きな蓮の花を発見した商人たち

장면 5 바다 위 큰 연꽃을 발견한 상인들

아버지를 위하는 심청의 효심에 감동한 용왕은 심청을 구해주었습니다.

“심청아. 용궁에서 편히 지내거라” 하지만 아버지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심청을 보고 용왕은 다시 심청을 육지로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심청 덕분에 무사히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상인들은 인당수 근처에서 커다란 연꽃을 발견하였습니다.

場面 6 宮殿で咲いた蓮の花と中から出てきた沈清

장면 6 궁궐안에서 연꽃이 활짝 피고 그 안에서 나온 심청

“보통 연꽃이 아니구나. 심청이 연꽃으로 환생했는지도 모르겠어” 놀란 상인들은 연꽃을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연꽃을 매우 신기히 여겨 오랫동안 지켜 보았습니다. 곧 꽃이 활짝 피고 그 안에서 심청이 나왔습니다.

왕은 놀라며 하늘의 뜻이라 여겨 심청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場面 7 お父さんのことが心配でたまらない沈清

장면 7 아버지 걱정에 여념 없는 심청

왕비가 된 심청은 선정을 베풀도록 왕을 도와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면서도 아버지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 맹인 잔치를 열어 전국의 맹인을 모두 초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눈을 뜨지 못한 심청의 아버지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궁궐 잔치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場面 8 娘と再会した喜びで奇跡的に目が見えるようになったお父さん

장면 8 딸과 재회하게 된 기쁨에 기적으로 눈을 뜬 아버지

우여곡절 끝에 잔치 마지막 날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된 아버지는 끝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잔치에 참가한 맹인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찾던 심청은 마침내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심청이에요”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딸 심청이란 말이냐.”

딸과 재회한 기쁨에 아버지는 기적처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한 심청의 효심으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